

윤홍천 William Youn

피아노 Piano

윤홍천은 견고한 테크닉과 섬세한 감성으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며 클래식 본고장 유럽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이다. 최근까지 이어진 그의 슈베르트 소나타 전곡 녹음은 독일의 클래식 음악 잡지 크레센도로부터 '세기의 명반'이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타 예술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면모와 범장르적인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에서 태어난 윤홍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와 예원학교에 수석 입학한 후 13 세에 도미하여 보스턴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와 월넛힐 예술고등학교에서 수학, 독일 하노버 음대에서 칼 하인츠 캐머링을 사사했으며, 이탈리아 코모 아카데미에서 교과 과정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16 세의 나이로 미국 보스턴 조던홀에서 벤저민 잔더가 지휘하는 보스턴 유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 이 공연의 성공은 남미 주요 도시 투어로 이어져 윤홍천은 일찍이 연주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2001 년,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윤홍천은 런던 위그모어 홀, 빈 콘체르트하우스,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 베를린 피에르볼레즈 홀,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도쿄 오페라 시티 콘서트홀, 프랑크푸르트 알테오퍼, 라이프찌히 게반트하우스,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바우, 로스앤젤레스 월트디즈니홀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공연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밤베르크 심포니,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다.

국내에서는 서울시립교향악단(지휘 정명훈), 경기필하모닉(지휘 성시연), 수원시립교향악단(지휘 최희준), 인천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내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고 서울예술의전당, 통영국제음악당, 대구콘서트하우스, 부천아트센터,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매년 이름 있는 국제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있는 그는 그슈타트 메뉴힌 페스티벌, 슈바르첸베르크 슈베르티아데, MITO 세템브레무지카, 그라페넥 페스티벌, 쉘레스비히 홀슈타인 뮤직 페스티벌, 라인가우 뮤직 페스티벌, 하이델베르크 스프링 음악축제, 뷔르츠부르크 모차르트 페스티벌 (상주 음악가), 슈베칭엔 SWR 페스티벌, 다보스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으며, 닐스 뵙케마이어, 자비네 마이어, 카롤린 비트만, 율리아 피셔, 조수미, 토마스 햄슨과 함께 무대에 오르고 있다. 또한 최근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박영희의 피아노 협주곡을 초연했으며, 하인츠 슈피얼리가 안무한 빈 슈타츠탈레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작품에도 연주로 참여했다.

2011 년 동양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독일 바이에른주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예술 진흥상'을 수여 받은 그는 빌헬름 캠프 재단의 최연소 최초 동양인 이사진으로 선출되며 의미 있는 사업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9 년 데뷔앨범을 시작으로 윤홍천은 지금까지 스무장이 넘는 음반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많은 관심 속에 독일 뮌스클래식에서 발매된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 녹음 프로젝트가 끝나고 지금까지 독일 소니 클래식과 함께 작업하고 있으며 2018 년에는 첫 솔로 음반 <Schumann- Schubert- Liszt>가, 2020 년부터는 3 년에 걸쳐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음반이 발매되었으며, 2024 년에는 불랑제, 포레, 레이날도 안의 피아노 협주곡을 담은 앨범이 발표되었다. 윤홍천의 음반은 독일 에코 클래식, 프랑스 디아파종지 황금상을 수여받았고 International Classical Music Award, 독일 평론가 협회상 및 독일 오푸스 클래식에서는 노미네이트 음반으로, 영국 그라모폰지의 에디터스 초이스 앨범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5 년 8 월부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임명되어 재직하고 있다.

"그는 크리스티안 자카리아스의 명료함과 알프레드 브렌델의 섬세한 뉘앙스, 다니엘 바렌보임의 따뜻한 음색을 모두 갖추고 있다." - 독일 Fono Forum

"이 감각적인 리사이틀은 4 개의 주요 유럽의 음악들을 묶는 연결점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손가락의 가벼운 움직임으로 윤홍천의 연주는 즐거우며 그는 부드러움과 춤을 추는 듯한 장난기, 그리고 반짝이는 기교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 연주한다." – BBC 뮤직 매거진"

"그는 슈베르트부터 후기낭만주의까지의 음악으로 비엔나의 전경을 확장해나간다. 이 얼마나 시적인 데뷔인가!" - hr2-kultur

"유모레스크의 이 장엄한 해석은 감수성, 감동, 그리고 낭만주의에 대한 깊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 France Musique

"지금까지 이와 같은 슈베르트는 들어본 적이 없다." – Crescendo